

2015년 2/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체감경기 동향

- 메르스 확산 전·후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 진단 -

박희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2/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체감경기 동향

- 메르스 확산 전·후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 진단 -

| | | |
|------|-------------------------------------|----|
| | 요약 | 3 |
| I. | 메르스 확산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 | 4 |
| II. | 메르스 이전까지의 서울경제 여건 | 6 |
| III. | 메르스 이전까지 서울의 2/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 9 |
| | 부록1. 2015년 2/4분기 부가 조사 : 장바구니 소비 행태 | 21 |
| | 부록2. 2015년 2/4분기 주요 조사결과 | 24 |

박희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27
hspark@si.re.kr

서울의 산업생산은 하락, 소비와 청년 고용은 회복세

서울의 산업생산은 2015년 2월부터 자본재와 중간재 생산이 급감하여 모든 부문에서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 4개월 평균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감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메르스 이전까지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설 명절의 영향이 있었던 2월 15.9%의 정점을 기록한 이후 2개월 만에 플러스 증감률로 회복하여 2015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7.2% 성장을 보였다. 백화점 판매액은 2월을 제외하고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반면, 대형마트는 플러스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의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15년 1월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3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4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한 5,102명에 그쳤다. 반면 2월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청년층 취업자 수의 증가율은 상반기 청년 인턴 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3월부터 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2015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한 887명을 기록하고 있다.

메르스 이전까지 2015년 2/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개선

서울 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15년 2/4분기에 전(前) 분기 대비 3.3p 상승한 93.9로 소폭 상승세로 반전하였다. 이 조사는 최근 메르스(MERS)의 영향을 받기 전에 실시되어 메르스로 인한 체감경기는 반영되지 않았다. 5월까지 엔화 약세 장기화, 세계 경제 회복세 지연 등의 불안요인이 존재했지만, 저유가 및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소비 심리 개선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3.3p 상승한 84.3으로 2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지수 값이 여전히 기준치(100) 보다 하회한다. 「현재경기판단지수」 또한 지난 분기의 큰 하락세와 달리 전 분기 대비 7.5p 상승한 63.1을 기록한 반면, 「미래소비지출지수」는 4분기 연속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전 분기 대비 3.3p 감소한 93.4를 기록하였다. 향후 교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 소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메르스의 영향을 포함한 불안 심리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르스 이후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절반 이하로 하락

메르스 확산 이후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매출이 확산 전 대비 60%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하였고, 권역별로는 관광객이 많은 중부권의 지수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I. 메르스 확산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

메르스 확산 이후 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절반 이하로 하락

메르스 확산 전·후 「매출체감지수」는 이전 보다 60% 감소

- 메르스 확산 전인 5월 말과 6월 중순 사이에 「매출체감지수」는 82.5에서 48.5p 급감한 34.0을 기록
- 업종별로 「도매 및 소매업」은 90.2에서 44.3으로 45.9p 하락하였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70.5에서 52.6p 하락한 17.9를 기록
- 조사결과 「도매 및 소매업」보다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분석
- 권역별로 5월 말 중부권에서 83.3 이었던 '매출' 체감지수는 65.0p 하락한 18.3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명동·동대문지역 등이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 영향으로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응답 업체 중 81.0%가 매출이 '매우감소' 하거나 '다소감소'한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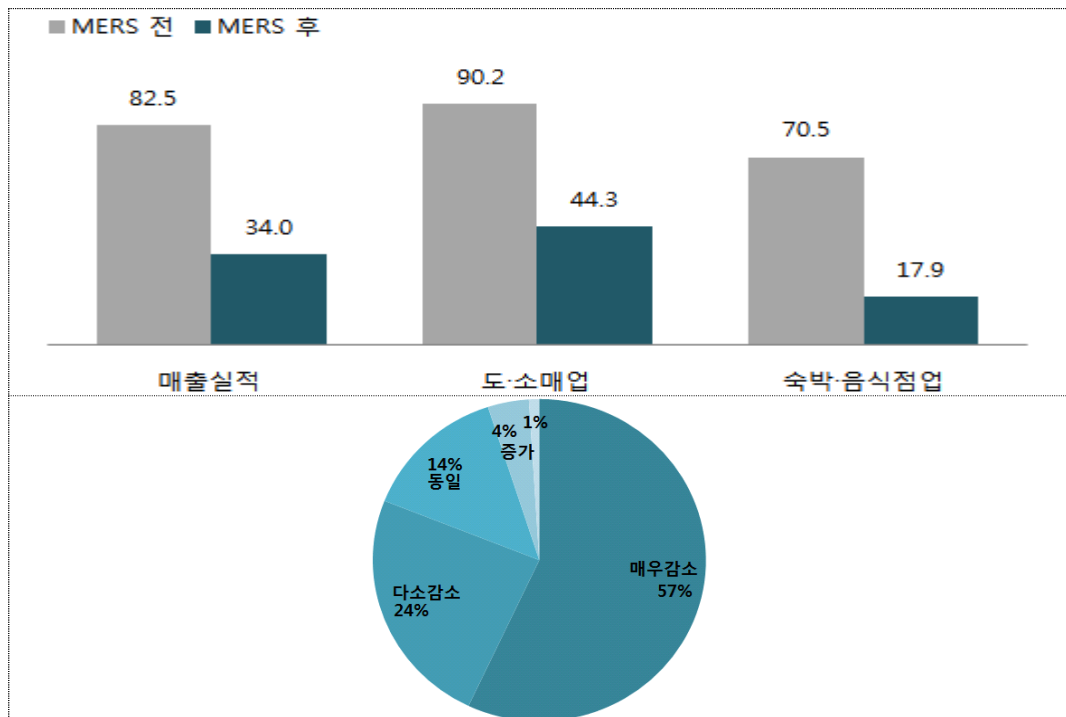


그림 1. 메르스 전·후 매출지수 변화와 매출실적 응답 비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전·후 긴급 조사

- **목 적** : 메르스(MERS) 확대 전·후의 경기상황을 살펴보고자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00개 업체를 중심으로 기업체감경기를 진단
- **조사대상** : 메르스 여파는 소비자보다 기업의 경기 체감이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이라 판단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매 분기 실시하는 ‘2015년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 조사’ 대상 업체 중 가장 여파가 큰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
- **조사시점** : 2015년 6월 16일부터 3일간
- **조사내용** : 기존 ‘2015년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 조사’의 설문 항목 중 매출, 영업이익, 업황에 대해 조사 진행

표 1. 메르스 확산 전·후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 구분(단위: 개) | | 소상공인 | 소기업 | 합계 |
|-----------|-----------|------|-----|-----|
| 업종 별 | 도매 및 소매업 | 44 | 17 | 61 |
| | 숙박 및 음식점업 | 27 | 12 | 39 |
| 권역 별 | 남부권 | 18 | 6 | 24 |
| | 동부권 | 15 | 8 | 23 |
| | 서부권 | 16 | 7 | 23 |
| | 중부권 | 22 | 8 | 30 |
| | 합 계 | 71 | 29 | 100 |

* 남부권 :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사당), 서초구, 송파구

동부권 :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서부권 :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부권 :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II. 메르스 이전까지의 서울경제 여건

4월까지 서울의 산업생산은 하락, 소비와 청년 고용은 회복세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하락세로 반전

- 서울의 「산업생산지수」는 2015년 들어 최근 4개월 평균 전년 동월 대비 -8.7%를 기록하여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2014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7.2%로 2014년 하반기 정점을 기록한 뒤 산업생산은 2015년 들어 감소세로 반전하여 4월 들어 11.4%가 감소
- 전국은 2015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2.7%의 성장률을 기록
- 부문별로 2015년 1월까지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던 서울의 자본재와 중간재 생산이 2월부터 급감하여 모든 부문에서 감소세
- 자본재와 중간재, 소비재 생산은 2015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5.5%, -22.4%, -6.3%의 증감률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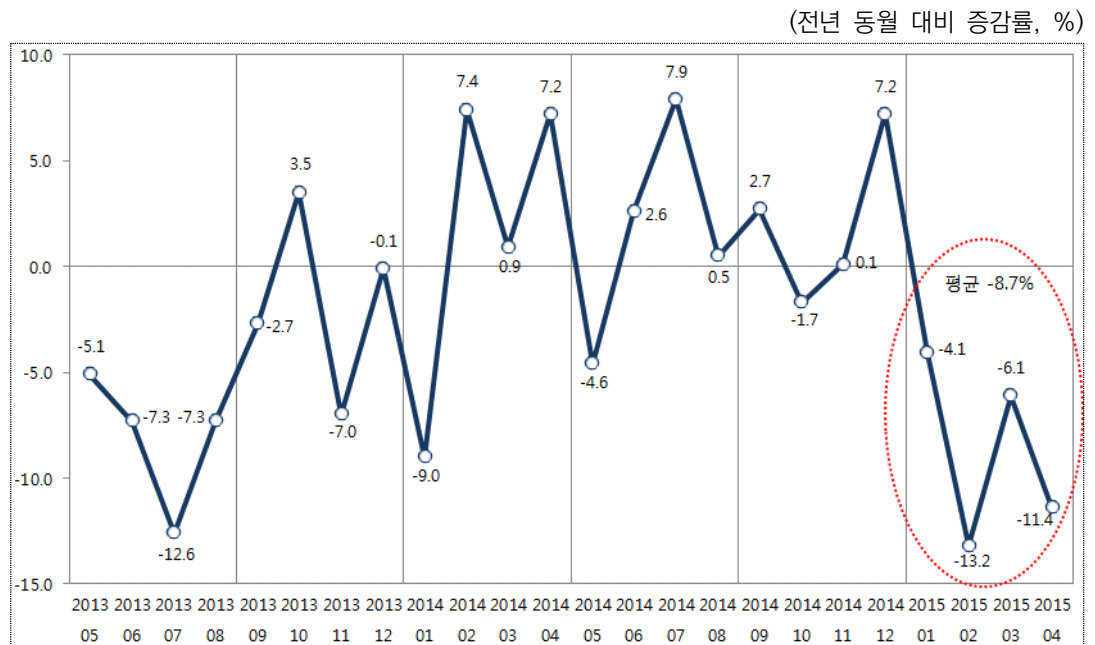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산업생산

자료 : 통계청

메르스 이전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최근 4개월 간 평균 3.4% 증가

-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015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7.2%가 증가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율은 2015년 2월 설 명절 등의 계절적 영향으로 15.9%의 정점을 기록한 후 2개월 만에 플러스 증감률로 회복
- 부문별로 백화점 판매액은 2015년 2월을 제외하고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는 반면, 대형마트 판매는 2015년 1월을 제외하고 연속 플러스 성장세
 - 백화점 판매액은 4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0.6%를 기록하여 최근 4개월 평균 -4.2%의 증감률을 보이는 반면, 대형마트 판매액은 4개월 평균 12.1%의 성장을 보여 4월 전년 동월 대비 15.9%를 기록
 -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015년 들어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형마트 중심의 성장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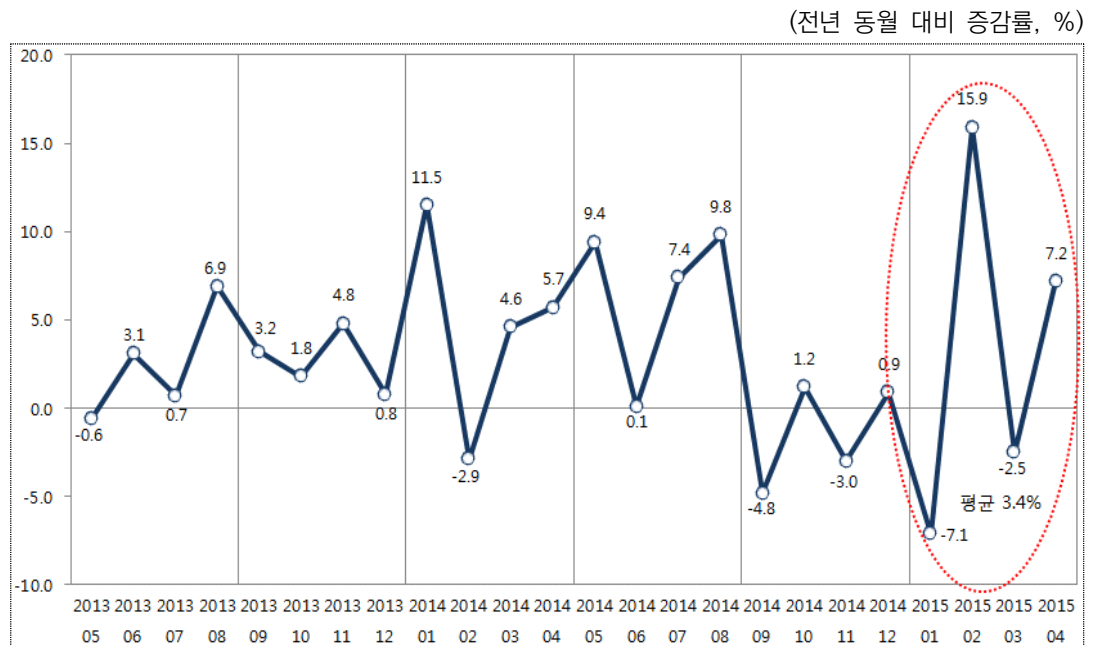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자료 : 통계청

전체 「취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청년층은 2개월 연속 증가세

- 2015년 4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8%가 감소한 5,102천명
 - 「취업자 수」의 증가율은 2014년 하반기 공채 등의 영향으로 2015년 1월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3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하락
- 2015년 4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가 증가한 887명
 -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2014년 하반기 이후 성장세가 하락하였으나 청년 인턴 프로그램 등으로 최근 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
 -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2013년 9월 이후 약 2년 만에 2% 이상의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어 반짝 효과로 끝나지 않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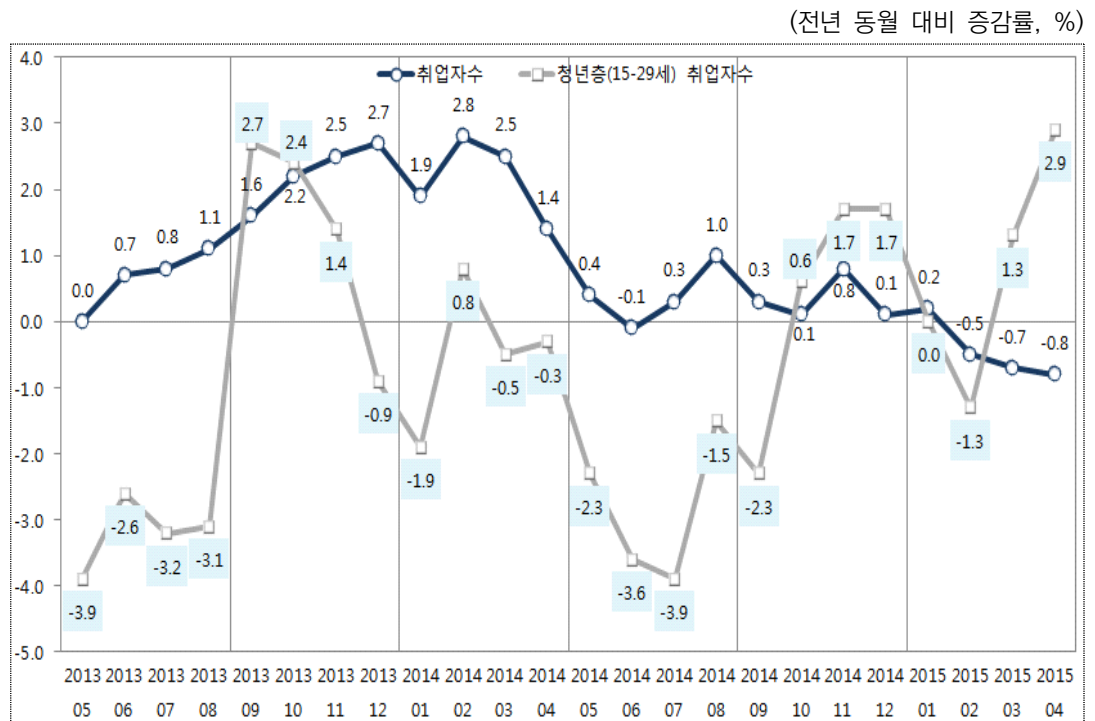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취업자 수

자료 : 통계청

Ⅲ. 메르스 이전까지 서울의 2/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경기 회복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은 여전히 부진

서울의 2/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소폭 반등세이나 기준치 이하

- 2015년 2/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93.9로 전(前) 분기보다 3.3p 증가
 -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2015년 1/4분기(90.6)까지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90대 초반까지 하락한 후 소폭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나 기준치(100)를 하회
- 서울 시민의 경기에 대한 체감정도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대외 경제의 회복세가 느리고 수출 저하 등의 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
 - 저유가 및 주택 시장의 회복세가 소비 심리 개선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엔화 약세 장기화, 세계 경제 회복세 지연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
 - 향후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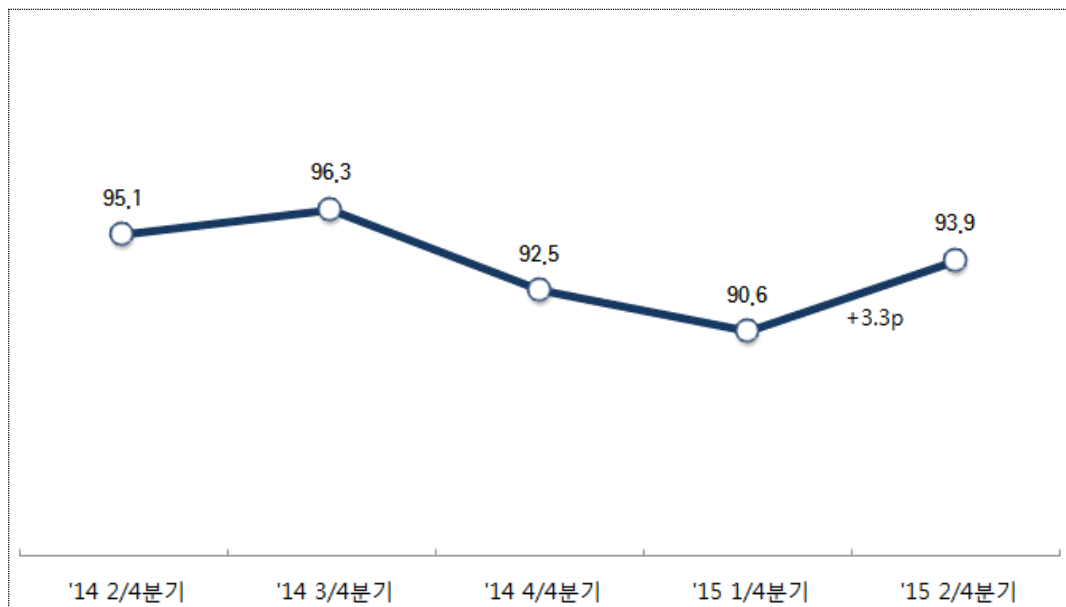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 개별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표준화지수임.

서울의 현재와 미래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 또한 여전히 부정적

- 2015년 2/4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3.3p 상승한 84.3, 「미래생활형편지수」는 98.1로 전 분기 대비 3.2p 증가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2분기 연속 상승하여 2014년 1/4분기(84.6) 수준으로 회복 되었으나 여전히 80대로 생활형편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미래생활형편지수」도 또한 2분기 연속 상승하여 기준치(100)에 근접하고 있으나 향후 생활형편에 대한 긍정적 신호는 아직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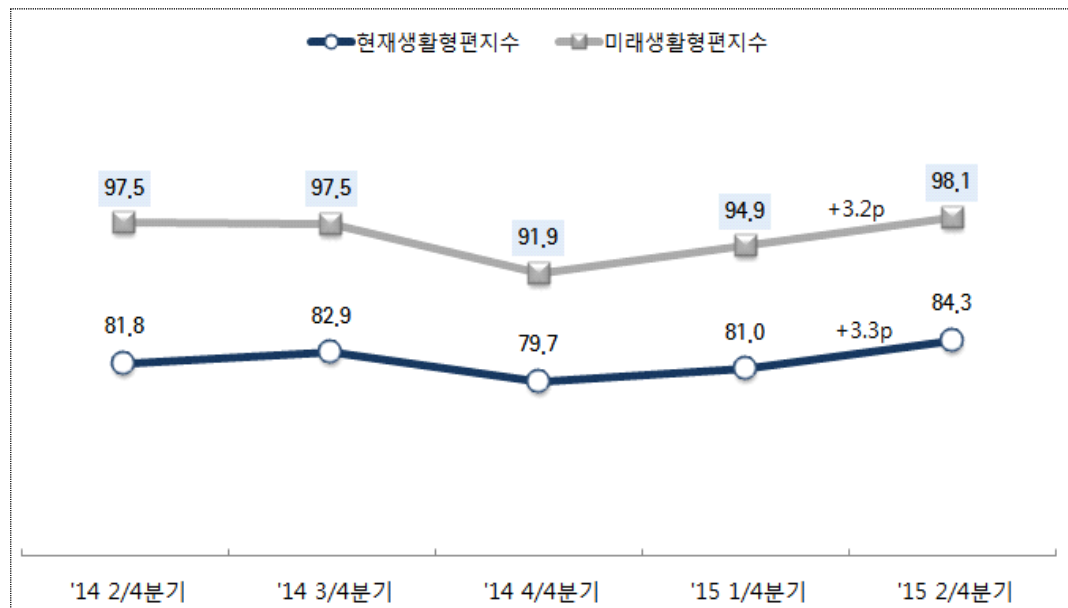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권역별로 도심권의 현재 생활형편이 가장 부정적

- 서울 전체의 「현재생활형편지수」인 84.3보다 높은 지역은 동남권(85.0), 동북권(85.0)이 동일한 지수 값으로 조사
- 5개 권역의 지수 값은 모두 8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권역별로 지수 차이가 크지 않아 현재 생활형편에 대해 느끼는 체감은 권역별로 비슷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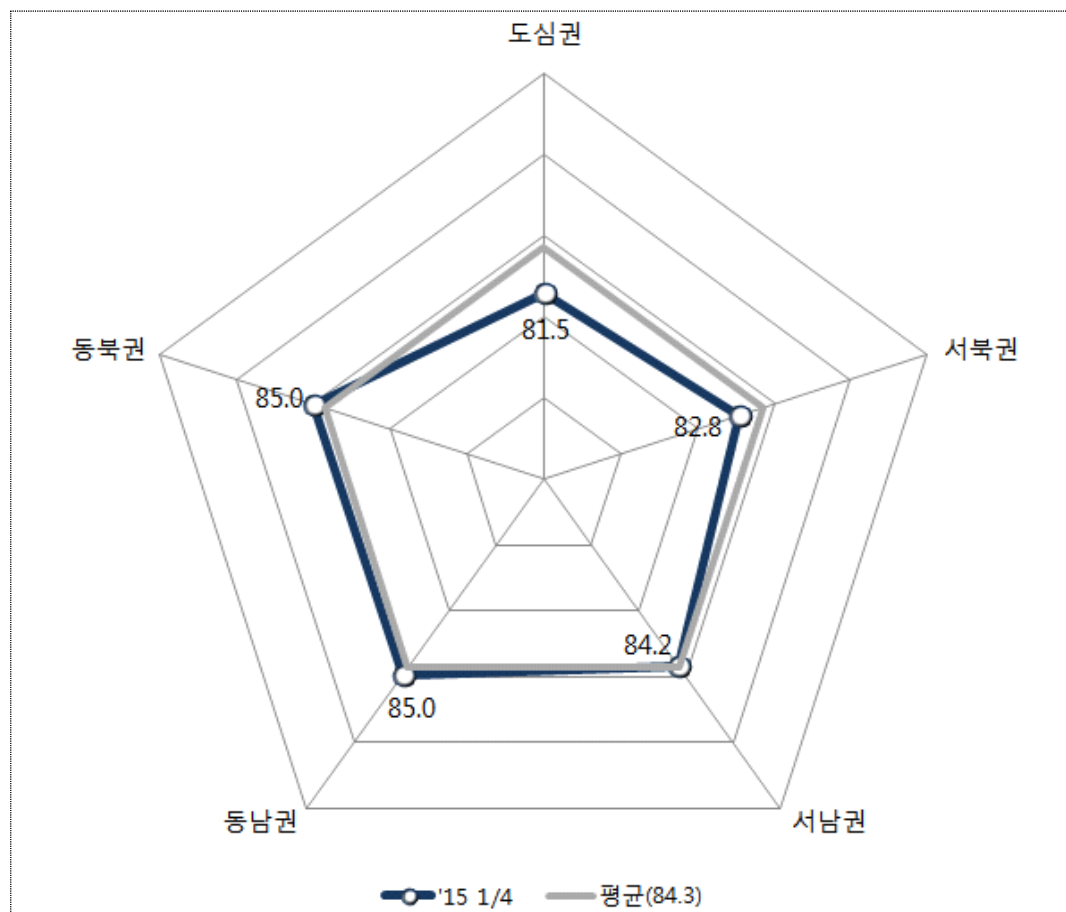


그림 7. 서울의 권역별 생활형편지수

메르스 이전까지 현재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전 분기 대비 호전

- 2015년 2/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7.5p 상승한 63.1을 기록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015년 1/4분기 55.6인 50대 중반의 수치까지 하락했으나 상승세로 반전하여 2014년 1/4분기 수준으로 회복
 - 그러나 2011년 이후로 지수 값이 중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준치 100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체감은 부정적
- 2015년 2/4분기 「미래경기판단지수」는 81.5로 전 분기 대비 1.5p 증가
 -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지난 분기에 최저점을 찍고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80대 초반의 수치로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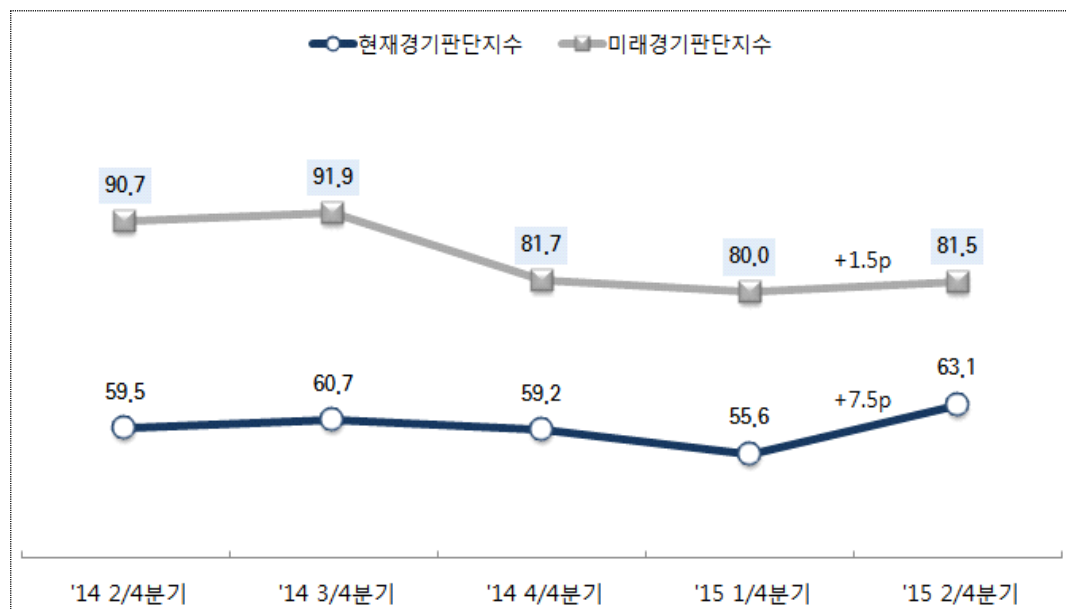


그림 8.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권역별로 도심권에서 현재 경기를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

- 5개 권역 중 서북권(64.9)과 동남권(64.1), 동북권(63.4)에서 전체 「현재경기판단지수」보다 높은 값을 기록하며 1년 전 대비 현재 경기를 평균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 반면 도심권(53.5)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많은 사람이 현재 경기를 부정적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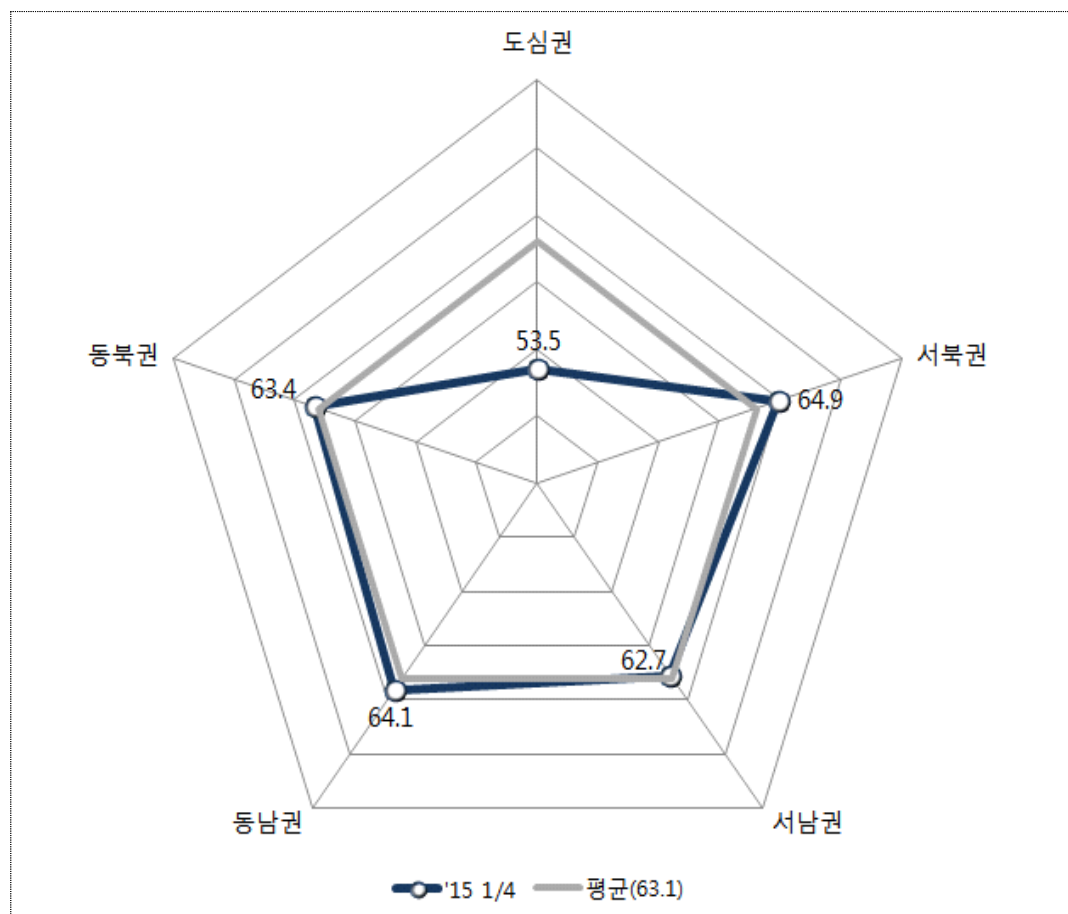


그림 9. 서울의 권역별 경기판단지수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은 부담, 향후 소비는 축소 전망

- 2015년 2/4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08.8로 기준치(100)를 상회
 -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년 전에 비해 현재 소비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전 분기 대비 3.7p 감소하여 지난해 4/4분기 수준을 유지
- 2015년 2/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93.4로 꾸준한 하락세
 - 「미래소비지출지수」는 2014년 1/4분기에 104.2를 기록한 이후로 연속 하락하여 전 분기 대비 3.3p 감소한 93.4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소비에 대한 계획은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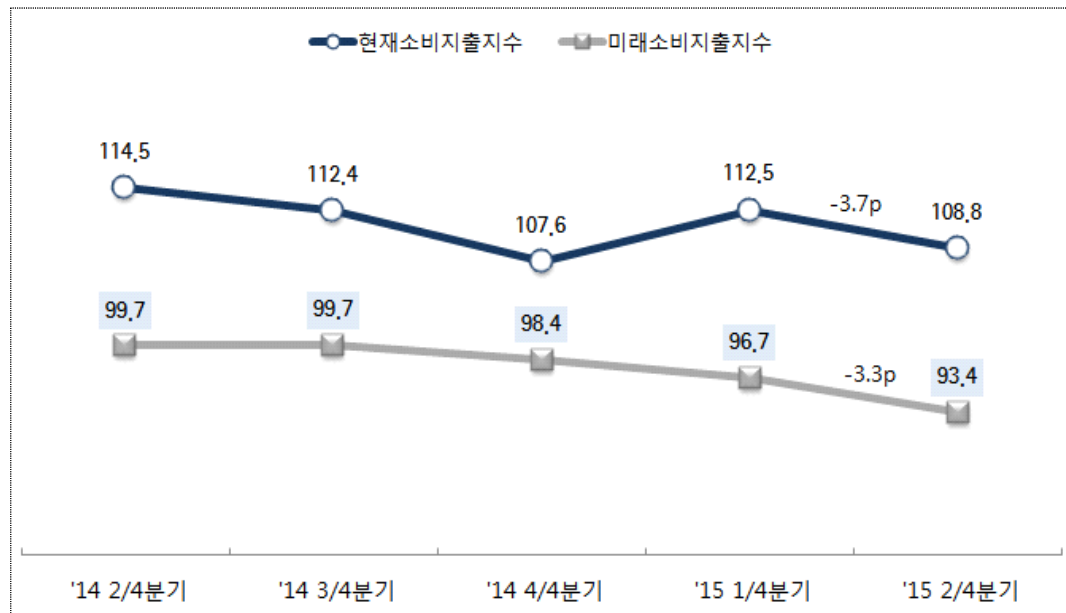


그림 10.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교육비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지출이 감소할 전망

- ‘교육비’는 전 분기 대비 6.8p 감소한 115.3을 기록하여 기준치(100)를 상회
 - 지난 분기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큰 폭 상승하였던 ‘교육비’는 평균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가계 지출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
- ‘주거비’와 ‘교통/통신비’는 2015년 2/4분기에 전 분기 대비 감소세로 향후 지출이 감소 전망
 - 지난 분기 기준치(100)를 상회하였던 ‘주거비’와 ‘교통/통신비’ 품목에서 전 분기 대비 각각 4.2p, 3.6p 감소한 98.2와 96.6을 기록하고 있어 소비 심리가 위축
- ‘의류비’는 전 분기 대비 2.7p 하락한 76.0, ‘문화오락비’는 전 분기 대비 6.4p 감소한 79.4인 반면, ‘식료품비’는 2.9p 상승한 97.3을 기록
 - 지난 분기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최근 5년 이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의류비’와 ‘문화오락비’는 하락세를 보여 크게 위축된 소비심리를 시사
 - ‘식료품비’는 97.3인 기준치(100) 이하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 분기 대비 2.9p 상승하고 있어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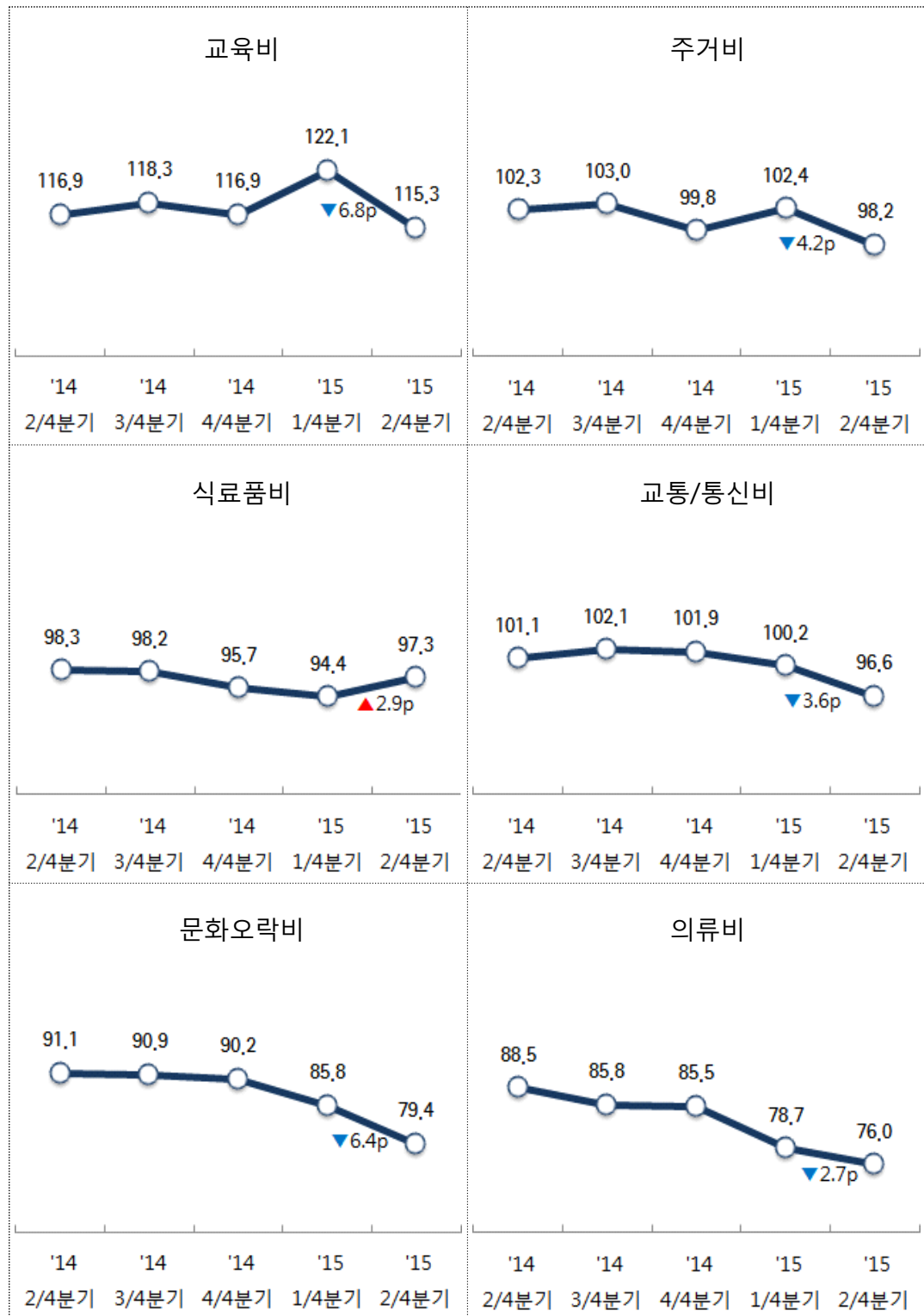


그림 11.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서울 시민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에 대한 의사는 부진

- 2015년 2/4분기 「내구재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1.1p 상승한 89.1을 기록
 - 지난 1/4분기(88.0)에 급격히 하락한 내구재에 대한 구입태도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비심리는 부정적
- 「주택구입태도지수」는 96.2를 기록하여 전 분기 대비 2.0p 하락
 - 전 분기에 소폭 상승세를 보여 회복의 기미를 보였던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2014년 4/4분기 수준으로 하락하여 주택구입에 대한 기대심리도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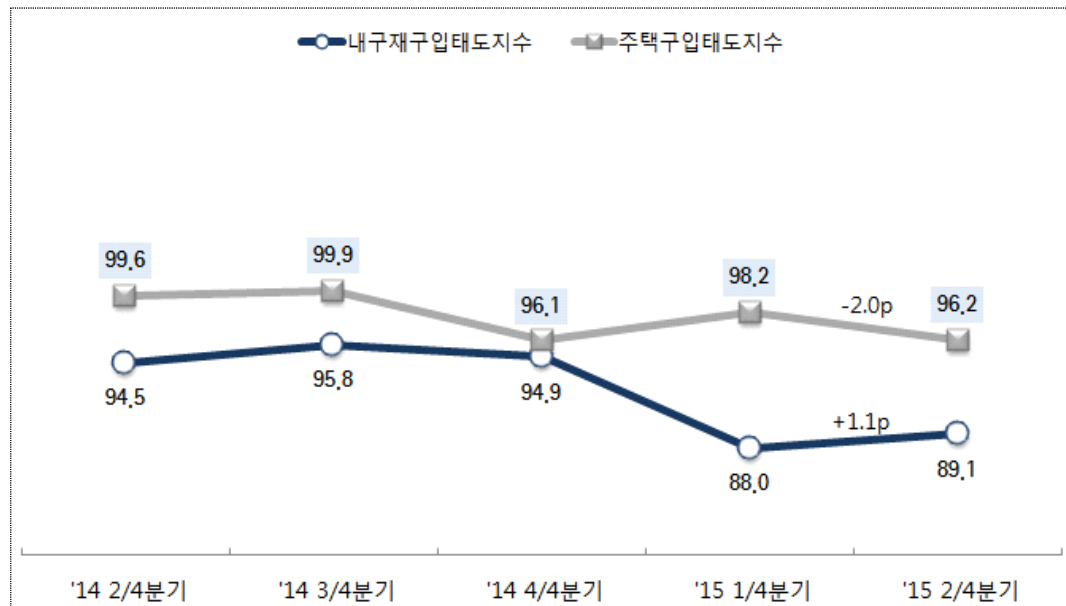


그림 12.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

권역별로는 동북권의 내구재구입에 대한 기대가 가장 부정적

- 서북권(90.8)과 서남권(90.0)의 내구재구입태도는 전체 지수 89.1보다 상회하고 있어 타 권역에 비해 현재가 내구재구입시기로 적절한 것으로 인식
- 반면 동북권(87.6)에서의 내구재구입에 대한 기대치는 전체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내구재 구입에 대한 권역별 소비심리는 차이가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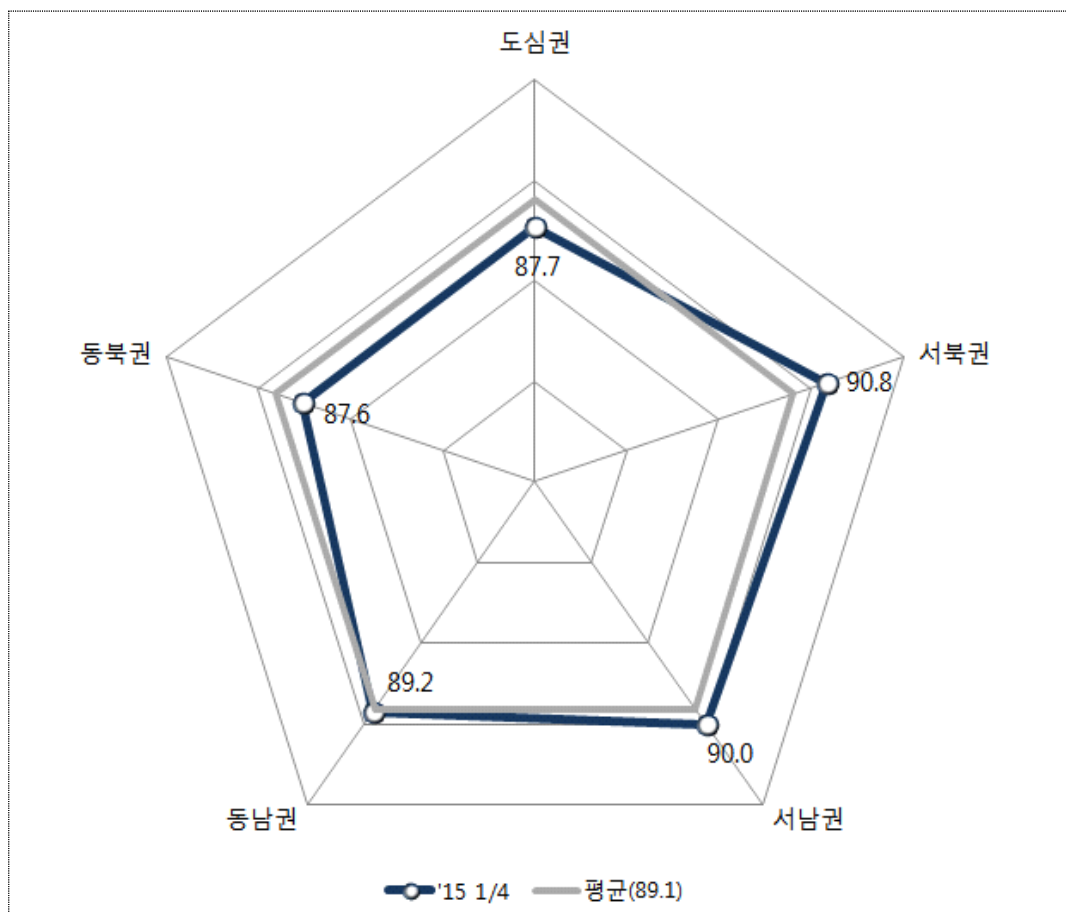


그림 13. 서울의 권역별 내구재구입태도지수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 주택구입시기에 대한 기대가 가장 부정적

- 동남권에서 「주택구입태도지수」가 100.0을 기록하며 기준치(100)에 보합하고 있어 주택구입시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 반면, 동북권은 91.9로 많은 사람이 주택구입시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같은 동쪽 권역에서 남북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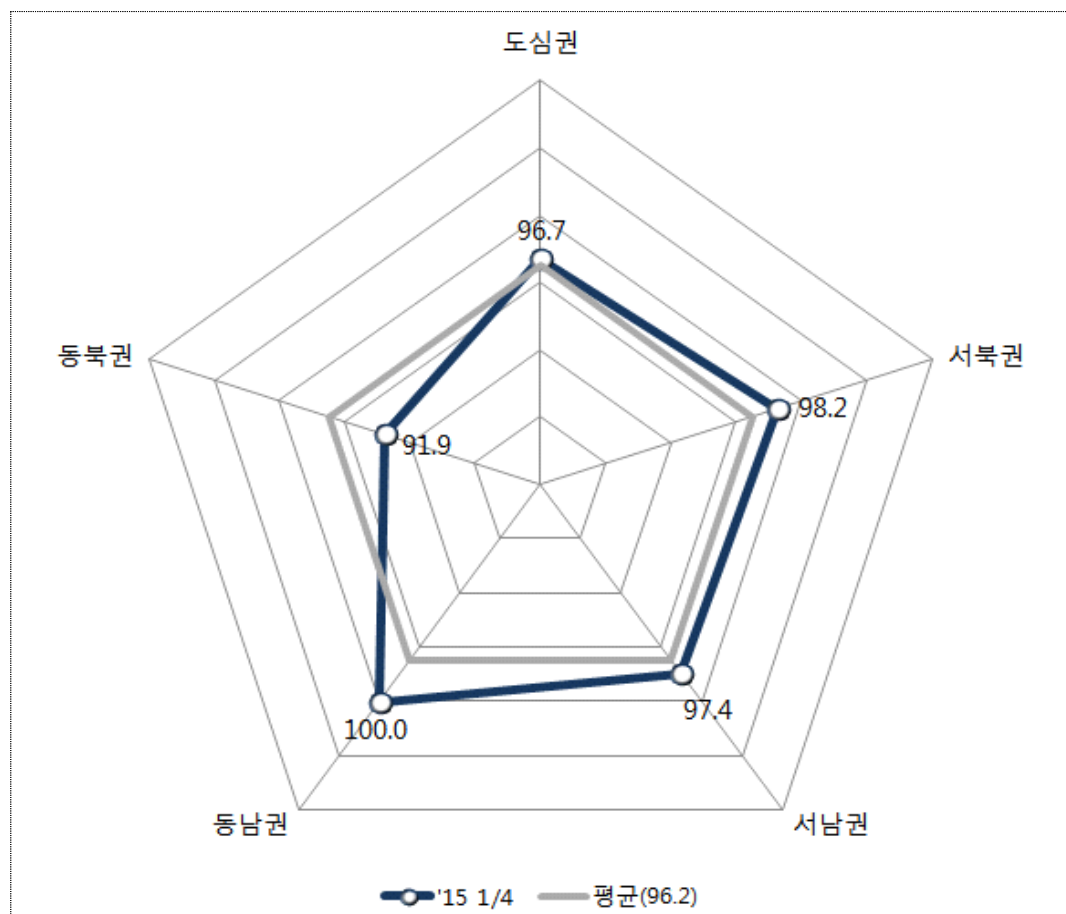


그림 14. 서울의 권역별 주택구입태도지수

고용상황, 체감물가, 순자산은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세

- 2015년 2/4분기 「순자산지수」는 전 분기 대비 2.1p 상승한 96.3을 기록
- 2015년 2/4분기 「물가전망지수」는 전 분기보다 4.4p 상승한 135.3으로 향후 체감 물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신선식품 등의 식료품비 등 식탁물가가 상승하고 있어 장바구니 물가 역시 상승한 것으로 판단
- 2015년 2/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73.3으로 전 분기 대비 0.2p 상승
- 2014년 말 취업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수 값이 70대로 하락한 이후 정체되어 있어 서울 시민이 체감하는 고용시장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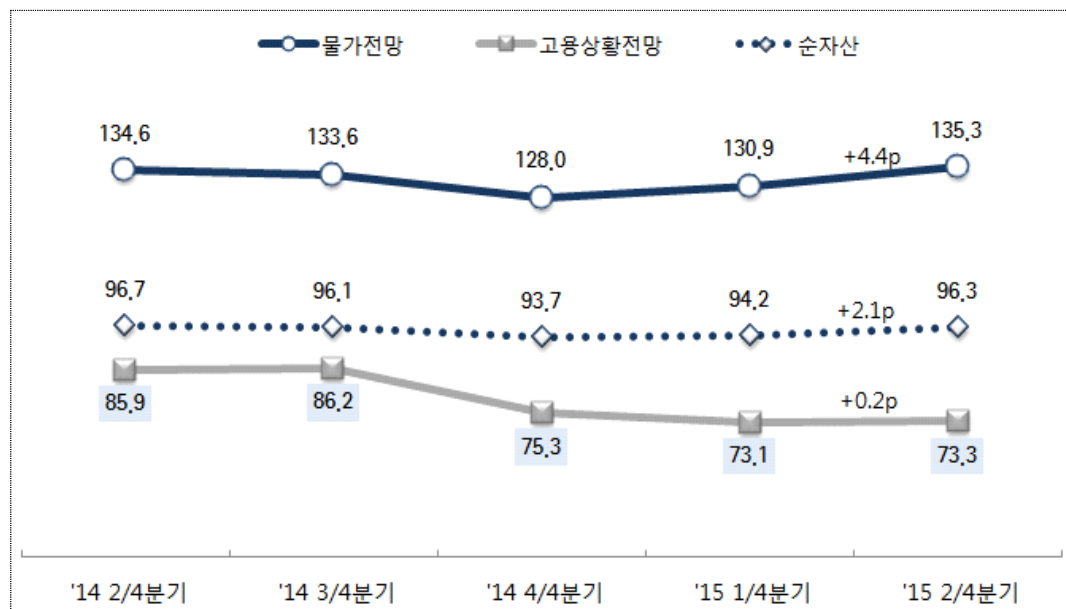


그림 15. 서울의 순자산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물가전망지수

부록 1. 2015년 2/4분기 부가 조사 : 장바구니 소비 행태

한 주에 1~2번, 주말은 대형마트, 평일은 동네마트를 주로 이용

평소 장 보는 빈도는 일주일에 1~2번, 도심권만 빈도수가 낮은 편

- 서울 시민들이 평소 장을 보는 빈도는 일주일에 1~2번 정도가 59.1%로 가장 많으며, 동남권과 연 소득 6,001만 원 이상의 사람들의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
- 그 다음 평균적으로 한 달에 2~3번 장을 본다고 답한 사람들이 21.9%, 주 3회 이상 장을 보는 사람들은 14.2%를 차지
- 권역별로는 ‘주 3회 이상’은 동남권에서 17.8%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서남권에 서 ‘일주일에 1~2번’을 62.6%, ‘한 달에 2~3번’은 30.0%로 도심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소득수준별로는 ‘주 3회 이상’은 15.9%로 2,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일주일에 1~2번’은 6,001만원 이상 가구에서 62.9%, ‘한 달에 2~3번’은 27.9%인 5,001~6,000만원 가구가 많이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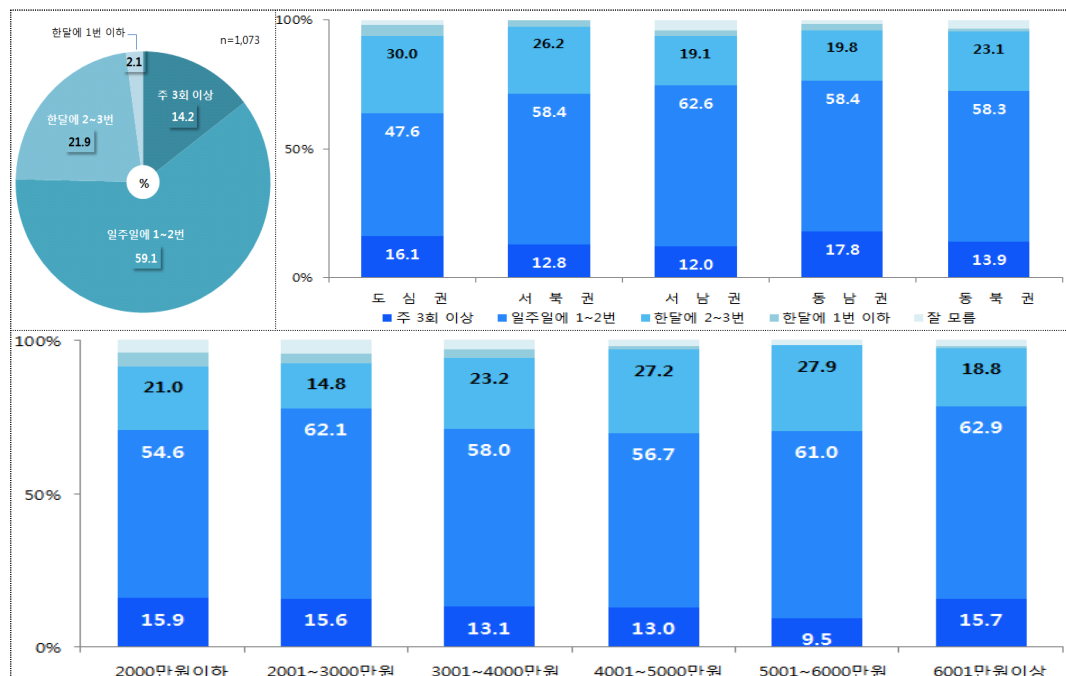


그림 16. 평소 장을 보는 빈도

주말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평일은 동네마트나 재래시장을 이용

- 주로 장을 보는 요일은 주말과 평일이 각각 50.2%, 49.8%로 비슷하며, 도심권에서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말에 장을 보는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
- 도심권에서는 주말에 장을 보는 응답률이 63.5%, 평일은 36.5%를 차지
- 연 가구소득이 높은 6,001만원 이상의 가구는 58.1%가 주말에 장을 보러 가는 반면 2,000만원 이하의 가구는 38.0%만이 응답
- 주말에는 주로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고, 평일에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66.5%, 57.7%의 사람들이 주로 주말에 장을 보고, 재래시장(58.1%)과 동네마트 및 슈퍼(54.2%)는 평일에 더 많이 장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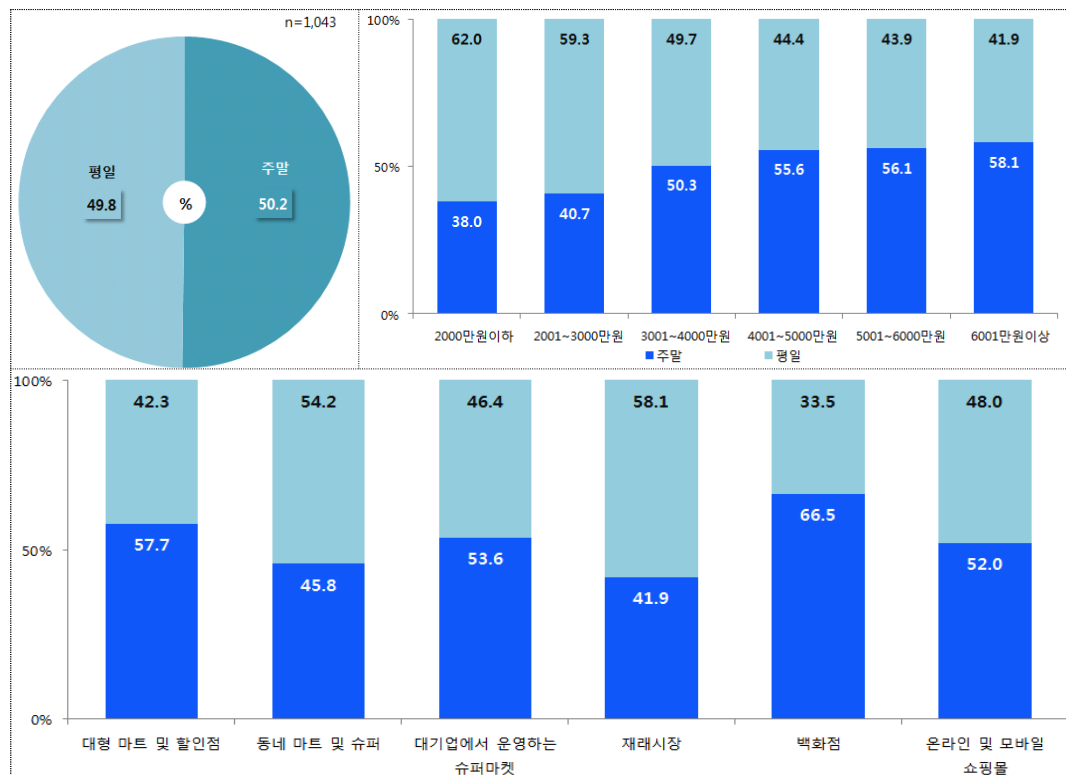


그림 17. 평소 장을 보는 요일

대형마트 및 할인점을 주로 이용하고 평균 5만원~10만원을 지출

- 주로 장을 보는 장소는 대형마트 및 할인점이 75.3%로 가장 높았고, 동네마트 및 슈퍼, 재래시장 순
- 모든 권역에서 동네마트 및 슈퍼가 2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도심권만 재래시장이 2순위를 차지
- 연 가구소득이 2,000만원 이하의 가구는 동네마트 및 슈퍼를 1순위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 장을 볼 때 한 번에 쓰는 금액은 평균 5만원~10만원 미만까지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만원~5만원 미만, 10만원~20만원 미만 순
- 평균 10만원~20만원 미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형마트 및 할인점 이용률이 90.9%로 가장 높았고, 동네마트 및 슈퍼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3만원 미만을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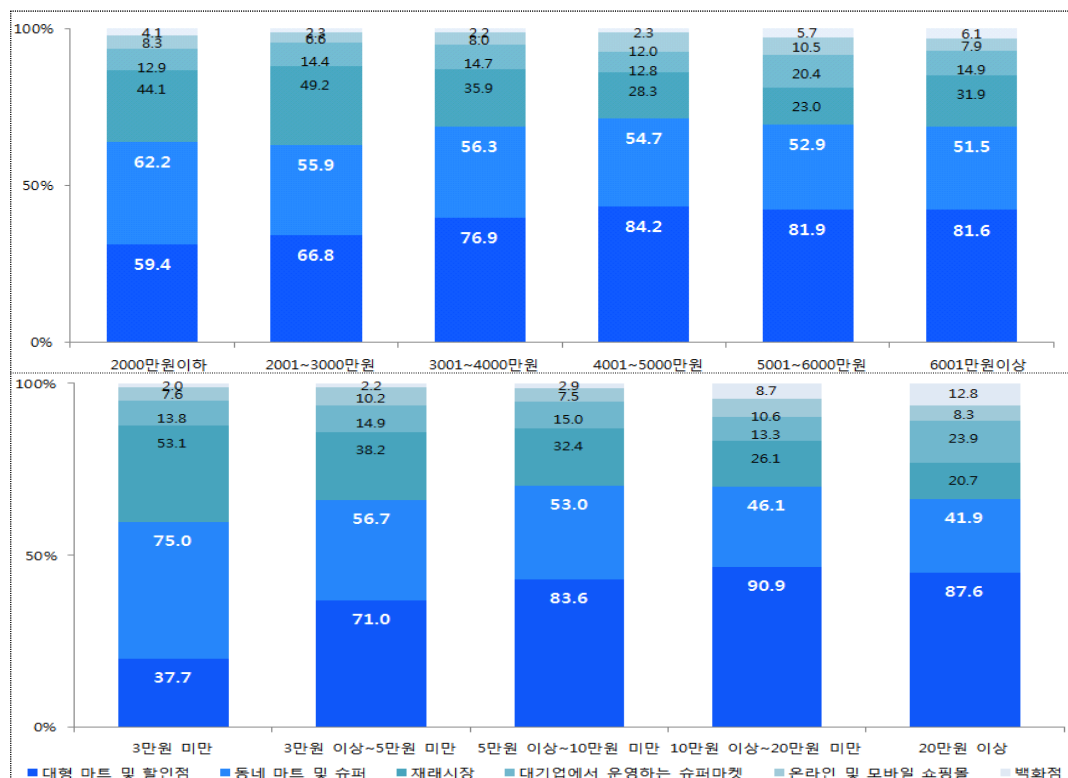


그림 18. 평소 장을 보는 장소와 지출 금액

부록 2 : 2015년 2/4분기 주요 조사결과

표 2.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 | 소비자 태도 | 생활형편 | | 경기판단 | | 구입태도 | |
|-------------|-----------|------------|------------|------------|------------|-------------|------------|
| | | 현재 생활형편 | 미래 생활형편 | 현재 경기판단 | 미래 경기판단 | 내구재 구입태도 | 주택 구입태도 |
| 2014년 2/4분기 | 95.1 | 81.8 | 97.5 | 59.5 | 90.7 | 94.5 | 99.6 |
| 2014년 3/4분기 | 96.3 | 82.9 | 97.5 | 60.7 | 91.9 | 95.8 | 99.9 |
| 2014년 4/4분기 | 92.5 | 79.7 | 91.9 | 59.2 | 81.7 | 94.9 | 96.1 |
| 2015년 1/4분기 | 90.6 | 81.0 | 94.9 | 55.6 | 80.0 | 88.0 | 98.2 |
| 2015년 2/4분기 | 93.9 | 84.3 | 98.1 | 63.1 | 81.5 | 89.1 | 96.2 |

표 3.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 | 소비지출 | | 순자산 | 고용상황 | 물가예상 |
|-------------|---------|---------|------|------|-------|
| | 현재 소비지출 | 미래 소비지출 | | | |
| 2014년 2/4분기 | 114.5 | 99.7 | 96.7 | 85.9 | 134.6 |
| 2014년 3/4분기 | 112.4 | 99.7 | 96.1 | 86.2 | 133.6 |
| 2014년 4/4분기 | 107.6 | 98.4 | 93.7 | 75.3 | 128.0 |
| 2015년 1/4분기 | 112.5 | 96.7 | 94.2 | 73.1 | 130.9 |
| 2015년 2/4분기 | 108.8 | 93.4 | 96.3 | 73.3 | 135.3 |

본 조사는 2008년 3/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를 대상으로 매분기 조사한 결과로,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pm 3.1\%$ 임(2015년 2/4분기 조사 시점은 2015년 5월 중하순으로 메르스 이전의 결과).